

물,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전라북도 부안군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는 해당지역의 상수도과 하수도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길을 닦고 새로운 하천을 만든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안군 수도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녹지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그것들이 바로 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을 사용하게 하는 일은 물론, 더욱 좋은 환경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곳, 부안군 수도사업소를 찾았다.

“부안군은 직소천이라는 좋은 상수원을 갖고 있었지만 취수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때문에 95년 이전까지만 해도 물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부안군에서는 ‘군민 모두가 맑은 물을 먹게 하자’는 목표를 내걸고 상수도 보급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도서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면 거의 100% 가까운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권 부안군 수도사업소장

친절한 수도사업소를 꿈꾸며

총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던 상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라는 새로운 이름을 단 것은 지난 2004년 8월. 이와 함께 시설관리팀이 상수도팀으로, 수도정책팀이 하수도팀으로 직제변경되었다.

한 해 8000건에 달하는 민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각 팀 별 업무를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급증하고 있는 해안가 편의시설들이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에 알맞은 개편이었다. 그래서일까, 부안군 수도사업소는 98%에 이르는 상수도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2011년 전국상수도보급률이 95%이니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한 셈. 하지만 처음부터 상수도 보급이 용이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부안군은 직소천이라는 좋은 상수원을 갖고 있었지만 취수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때문에 95년 이전까지만 해도 물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당시 부안군에서는 ‘군민 모두가 맑은 물을 먹게 하자’는 목표를 내걸고 상수도 보급을 역점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도서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면 거의 100% 가까운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가 어디 한 사람만의 뜻으로 이루어졌겠는가.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욕과 노력이 없었다면 건강생심 바랄 수 없는 결과였다.

부안군 수도사업소의 앞선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안군의 캐치프레이즈인 ‘일등 부안 만들기’라는 문구 역시 수도 사업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니,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예전에는 누수 신고 후 평균 15일이 소요되던 누수 복구요즘에는 24시간 내에 처리하고 있는 것도 다른 곳과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 신고 대장을 만들어 일련번호, 민원 접수시간, 접수

담당자, 추후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토록 한 후에 누수복구 전담 대행업소를 지정하여 전시행. 후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 위주의 행정 체제를 도입하자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까지 긍정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낳게 되었다. 또한 2004년 혁신과제였던 PDA를 이용한 검침을 시행하는 한편, 검침원을 주부, 지역 원로 중 선발해 운영하는 터라 검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예산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누리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정확한 검침으로 수용가 민원감소로 행정신뢰도가 제고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PDA를 이용한 수도검침은 전북 지역에서 부안군과 전주시만 시행하고 있는데, 상수도 검침 및 사용료 징수 업무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필수조건을 넘어 충분조건으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뤄낸 부안군 수도사업소지만 진정한 자랑거리는 따로 있다. 그 으뜸은 바로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에 위치한 이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은 자연통풍에 의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이다. 부유성 유기고형물이 수초의 뿌리 및 골재표면의 미생물에 의해 산화 분해되어 제거되므로 슬러지 발생이 없고 기계식 펌프, 브로워 등 기계설비가 필요치 않아 전력비 소요가 없다. 또 처리장 가동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역시 불필요해 유지관리비로부터도 자유롭다.

물론 설치과정에서는 마찰도 적지 않았다.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이 들어선다는 데에 두손 들어 반길 주민은 없는 게 당연한 일. 특히 한 주민은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으로의 견학도 거부할 정도로 완강히 거부했는데, 완공된 후에는 오히려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 고맙다는 감사 전화까지



썬 키스 로드(Sun Kiss Road)



친환경 · 생태학습공간이 된 하수처리장(위티파크)



PDA를 활용한 수도검침

걸어왔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정화된 하수는 환경부의 고도처리 방류수질 기준인 BOD 10을 만족시키고도 남는 BOD 2를 기록할 정도로 깨끗했는데, 이제는 타 지역 주민들이 견학을 오는 체험코스도 급부상했다. 또한 악취는 커녕 작은 부유물 하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쁘게 꾸며진 갈대밭이 마을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썬 키스 로드(Sun Kiss Road)다. 하수도 배수관이 지나는 길을 주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조성한 이 길은 한쪽으로는 지압을 위한 보도블럭과 황토길이 깔려 있고, 또 한쪽으로는 농기계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포장도로가 닦여 있었다. 그런데 이 길 양쪽으로 심어진 갖가지 야생화와 해바라기 등은 모두 부안군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었다. 부족한 예산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다 보니 퇴약별 밑에서 심어놓은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쏘아내는 일들을 모두 직접 해냈다고 한다. 이제는 지역의 명소가 되어 아침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썬 키스 로드를 찾아 운동을 하고 산책을 즐기고 있으니, 이들의 고생이 어느 정도는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다.

리더가 아닌 조정자의 모습으로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낸 데에는 전권 수도사업소장의 역할이 컸다.


부안군 건설과 등에 근무하던 중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지원했다는 수도사업소. 이곳에서 그는 직장동료와 한팀이 되어 구성원과 리더로서 때로는 업무조정자로서 역할을 맡아 혁신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발굴하였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나서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던 것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끌어냈다고. 하지만 전권 소장이 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지휘

한 것은 아니다. 소장실을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로 꾸미고 자신은 사무실 한 구석에 책상을 갖다 놓고 업무를 볼 정도로 소탈한 모습의 전권 소장은 리더가 아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다.

“하나의 안전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각 팀별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지시가 아닌, 상호의견교환의 시간을 갖다 보면 자연스레 최선의 방향이 가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뒷짐만 쥐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 번은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언어장애인이 누수문제로 사업소를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한다. 사정을 알게 된 전권 소장은 사업소 내 세 팀의 책임자를 모두 모아 그 청각장애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파악케 했다. 또 지역 내 협력업체도 참여케 해,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 옥내 누수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기도 했다. 앞에 설 때와 뒤에 설 때를 적절히 구분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전권 소장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와 나 구분없이 같은 보폭으로 뛰고 있는 부안군 수도사업소. 이들이 시작했던, 그리고 시작할 일들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었다. 도서 지역에 자체 저수지를 만들어 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든 일이라든지, 부안댐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일, 웰빙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일 등은 '수도사업소'라는 이름을 걸고 해내기에는 벅찬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일들이 모두 부안군 수도사업소 사람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부안군 수도사업소 사람들이 지금처럼 너와 나의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다면, 일등 부안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안군 수도사업소의 자랑 친환경 마을하수처리장



현재 부안군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인 청림·노적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루 76m³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이곳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에 걸쳐 준공됐는데, 분류식 하수관거 포함 총사업비 7억 7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사업 초기에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의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을 견학해 하고 주민들과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낸 덕분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고 한다. 오히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모범적인 운영 사례로 꼽혀 개장 이후 2,172명(주민 1,663명 학생 418명) 지자체 10개 방송사 1개 환경단체 80명의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 부안군의 명소로 탈바꿈했다.

설계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운영상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부안군 수도사업소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 덕분에 현재 청림·노적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은 전력소모와 전문인력 배치,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3무(無) 하수처리장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하수처리장설치로 각 가정에 설치된 기존 정화조 시설이 필요 없게 되어 건축물 증축 및 개축시 정화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사라졌다. 또 오수관로를 분류해 하수도 시설이 깨끗해지고 마을의 공중보건위생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게다가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뛰어난 조경을 가꾸어 놓은 공원처럼 보일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마을 초입의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 전경